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DVR의 기술벤처,

인투텍

1. 새벽 2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산한 웃음소리, 2.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하는 공포영화 속 유령의 섬뜩한 얼굴, 3. 나 홀로 있는 지하 주차장. 이중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현실의 삶에서는 단연코 지하 주차장이다. 종종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곤 하는 현실. 다행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눈이 있다. 바로 폐쇄회로 티비CCTV와 이를 녹화, 저장하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DVR은 보안인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건사고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 존재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국내 벤처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DVR시장에서 이미 안정적인 기술 기반을 다진 인투텍. 업력 10년을 바라보는 현재, DVR Technoneer로 발돋움하는 인투텍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어본다.



(주) 인투텍

- www.intotech.co.kr ■ 설립일 : 2000년 1월
- 사업개요 : DVR 보안감시 종합 솔루션, DVR관련 H/W, S/W
- 자본금 : 6억 ■ 직원수 : 40명 / 미국, 중국, 광주, 부산 지사

DVR이란?

기존 VCR로 영상을 녹화해온 보안카메라의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극복한 것이 바로 DVR. PC 하드디스크에 디지털로 녹화, 저장하여 아날로그방식의 VCR에 비해 큰 저장용량과 정확하고 편리한 데이터의 검색과 사용을 자랑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다. 최근 DVR제품 중 주류를 이루는 스탠드얼론standalone DVR은 이미지를 저장하는 캡처보드를 컴퓨터 메인보드에 내장embedded 한 형태로 안정성이 뛰어나는 물론 기존 아날로그 CCTV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대표제품 : Smart Standalone ST04

- 실시간 영상 감시 및 저장에 최적의 솔루션. Linux OS를 바탕으로 뛰어난 안전성을 자랑하며 최신 MPEG-4 영상 압축 CODEC를 채용하였다. 장소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제품
- Triplex(Display, Recording, Play back and Network)
- Support remote controller.
- Max 4HDD / USB Mouse / CD Backup
- Quick search and Setup by each channel in display mode.
- MPEG-4 Compression
- Support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 Multi output(Amplifier Loop out)



자체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DVR 보안감시 솔루션을 제조, 개발, 생산 및 유통하는 (주)인투텍(대표 김정현 www.intotech.co.kr). 인투텍은 CCTV 카메라부터 DVR(Digital Video Recorder), 영상압축저장 시스템, 영상전송 및 각종 데이터전송, 원격 제어시스템, 인터넷 화상 전송시스템 등 DVR 산업의 전반을 망라하는 기술과 실력이 믿음직한 중견벤처이다.

“개발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라며 운을 떼는 김정현 대표.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졸업 후 포스코에 입사하여 5년 정도 관리업무를 맡았지만, 직접 개발의 희열을 잊지 못했다. 결국 퇴직금 천만 원을 밀천으로 99년 서울, 어느 호프집 2층에서 인투텍은 영상솔루션 설계를 주제로 첫걸음을 떼었다. 이후 자석이 철가루를 당기듯, 하나 둘씩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 기술을 만들어냈고 기술의 축적과 함께 회사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창사초기 실시간 자녀 관찰 시스템과 KTF 기지국 무인원격시스템 수주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세계로 나가기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한 인투텍. 다음 목표는 수출이었다.

“무작정 캡쳐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품을 보기는 커녕 사장이 명함교환조차 거절하더라구요. 그래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 제품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라는데 있나봅니다. 제품도 못 보여주고 낙심해 근처 술집에 들렀는데, 정말 우연히 그 쪽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술잔을 부딪치며 부사장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김대표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대를 설득, 결국 1주일간의 제품테스트를 거쳐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물꼬가 터진 첫 수출이 2002년. 인투텍은 현재까지 천만 불에 육박하는 누적 수출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유럽, 케냐로 미국과 중국에 현지 지사를 두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해외로 갈 것 없이 국내에서도 인투텍의 성과는 빛난다.

“DVR 하면 보통 CCTV가 떠올라, 자칫 보안용 용도만 생각하기 쉽지만,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댐이나 터널 같이 사람이 작업할 수 없는 곳의 내부관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구요. 인투텍의 경우 현재 내시경 촬영 저장시스템인 의료용 DVR은 물론 KT가 운영하는 노래방 UCC 촬영용 DVR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관제 솔루션 및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KTX 영상관제



솔루션 제안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망 관련 관제

센터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기업이나 관공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매진하다 2년 전에서야 국내시장으로 향한 인투텍의 성적표는 파죽지세다. 전국 GS25 편의점, 부산 지하철 80개 역사 관제 솔루션, 인천 항만청 관제솔루션 구축등과, 총 3만대의 카메라가 연동된 KT Nescam 관제 솔루션 설계 및 JSA 대대 등 천여 곳에 이르는 군부대 납품, 전체 규모 2조 원에 육박하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대형 관제 솔루션까지 개발·납품하였다.

한편 DVR산업의 발전 방안을 묻자, 김정현 대표는 국가 차원의 업계 표준 제정을 강조한다.

“한국 DVR업체는 기술력도 우수하고 수출 비중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별로 각기 제품 표준이 달라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핸디캡입니다. 적어도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저장포맷에 관련된 표준 규약을 만들어 호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 DVR산업에서의 국가적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운영과, 업체들을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자기철학이 있는 사람들의 인투텍”

올해로 8년 업력의 나이테를 새긴 인투텍의 중간 매듭을 짓고,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정현 대표는 “자기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회사와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인투텍은 조직원에게 인사 및 자금, 관리에 적절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 병역특례요원 단 한 명을 뽑을 때도 3천 명의 서류를 살펴 3백 명에게 전화를 돌리고 30명을 면접한 적이 있을 만큼 공을 들여 인투텍의 사람을 찾는다. 그런 상호존중과, 인재를 소중히 하는 노력이 인투텍을 DVR업계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고, 가치를 뽐게 만들었을 것이다.

고난의 순간을 넘두리하기보다는 보람의 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정현 대표와, 기술과 인재, 미래를 향한 비전. 3박자를 고루 갖춘 인투텍. 임베디드 DVR 및 진일보한 대형 관제 솔루션 등으로 올 무난히 60억 이상의 매출달성을 바라보고 있다며 “DVR만큼은 자신 있다” 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든든하다.

